2021 한동교육개발원 학업 공모전(3차)

**< 좋은 수업을 소개합니다 >**

**“인∙영성과 학문의 통합”**

**부제 : 신앙과 학문의 통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제 목** | 보이지 않음을 바라보는 자세 | | | | |
| **과목이름** | 선형대수학 | | | | |
| **수업시기** | 21년도 2학기 | | **담당 교수님 성함** | | 김성옥 |
| **지원자**  **프로필** | **이 름** | 김현욱 | | | |
| **학 번** | 21800201 | | | |
| **학 부** | 전산전자공학부 |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010-2365-5861 | |
| 이메일 | | 21800201@handong.edu | |
| 2021년 11월 27일  한동대학교 한동교육개발원 귀하 | | | | | |
| 현재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며 수학적 사고와 신앙이 어떻게 통합되며 이 지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섭리를 이 세상에 적용시킬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선형대수학이란 벡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변환, 독립, 종속 등 벡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며 무수히 많은 벡터 사이의 관계성과 특징들에 대해 배우는 학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우리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은 2차원 평면 또는 3차원 xyz 공간으로 국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5차원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정의를 하며 이해하지 라는 생각으로 혼자 공부하며 끙끙 앓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수학적 정의와 풀이는 대부분 방정식이고 이에 맞는 그래프와 그림으로 이해했었던 공부 방법으로는 도저히 4차원 이상의 벡터 공간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수업 속에서 적용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벡터 공간으로 비유하시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1차원 공간의 있는 개미가 마주보며 걸어올 때 1차원 개미는 더 이상 갈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2차원 공간의 개미는 한 발짝 옆으로 움직여서 1차원 개미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예시였습니다. 1차원 개미는 옆으로 움직여준 2차원 개미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없지만 2차원 개미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사실 2차원 개미는 1차원 개미의 바로 옆에 있어도 1차원 개미인 인간은 그 옆에 있는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앞으로 묵묵히 나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교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수업을 듣는 목적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때 생각하고 공부했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공간을 뛰어 넘어 그 이상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인간)의 힘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죠. 사실 이 수업에서 배우는 이론과 정리된 Theorem 들은 하나님의 dimension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이론과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1차원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미(인간)이 그 높은 차원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존재를 알며 그 분의 형상을 따라가기 위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선형대수학, 벡터가 쓰이는 학문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IT 키워드로 떠오르는 AI, 자율 주행, 의료 분야 등 쓰이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며 그분의 생각을 분야에 적용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수업을 배울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많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리했을까, 이 이론을 어떻게 발견했을 까 하며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Chapter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었고, 학문의 수준이 높으신 교수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시 혼자 곱씹어 보면서 이론을 받아드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에 오기 전에 배웠던 모든 학문이 어쩌면 더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이론에 대해 공부하고 글을 읽으며 이해를 하며 논리를 성장시켜 왔다면 한동대학교에 온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문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발언이 아니라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의 연장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사랑해야 할 의무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의 학점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실용적인, 실제적인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수업에서 이를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수준으로 가기 위한 학문의 길이기에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시금 공부해 나가는 한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 | | |